

# 경남 여성기업 창업률 및 생잔율 추이<sup>1)</sup>

Vol. 35  
 2024. 10



경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보배

자료 : 전국 사업체 조사 원자료

경남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여성 기업 생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「전국사업체조사」 원자료를 이용해서 창업률과 생잔율을 산출해서 비교함<sup>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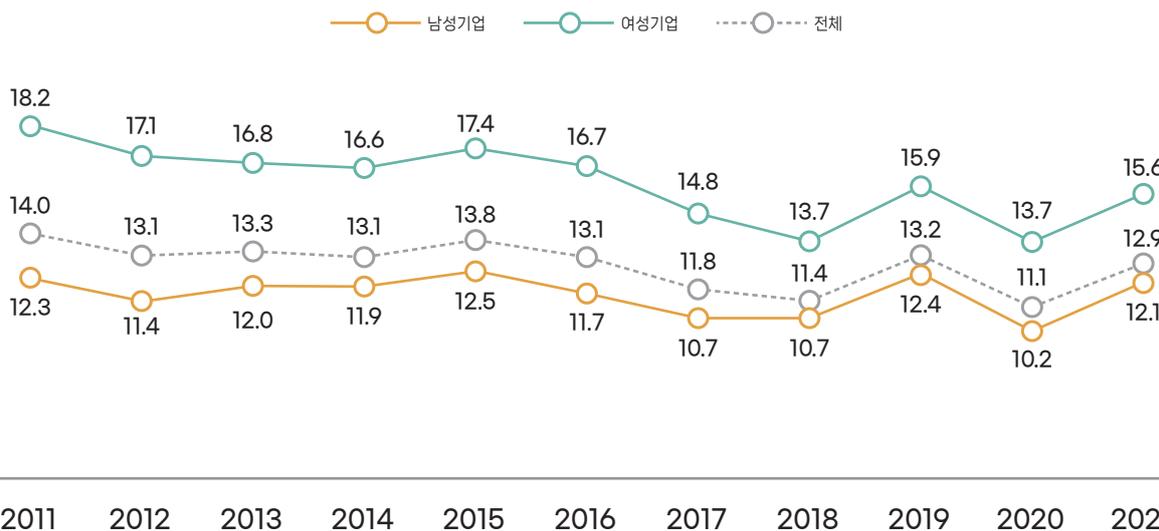
## 1. 경남 여성 기업 창업률

· 경남 여성기업 창업률은 남성기업보다 더 높고, 최근 여성의 이공계열 분야 창업 증가

|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기업 창업률이 남성기업 창업률보다 더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

2011~2021년 경남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창업률 추이

(단위 : %)



출처 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, 「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(2011~2021)」, MDIS.

※창업률( $g$ ) $_t$ 은 해당연도에 실제 창업한 경남 사업체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로 각 연도( $t$ )의 전체 사업체 중 해당 연도에 신규로 창업했거나 유입된 사업체 비율을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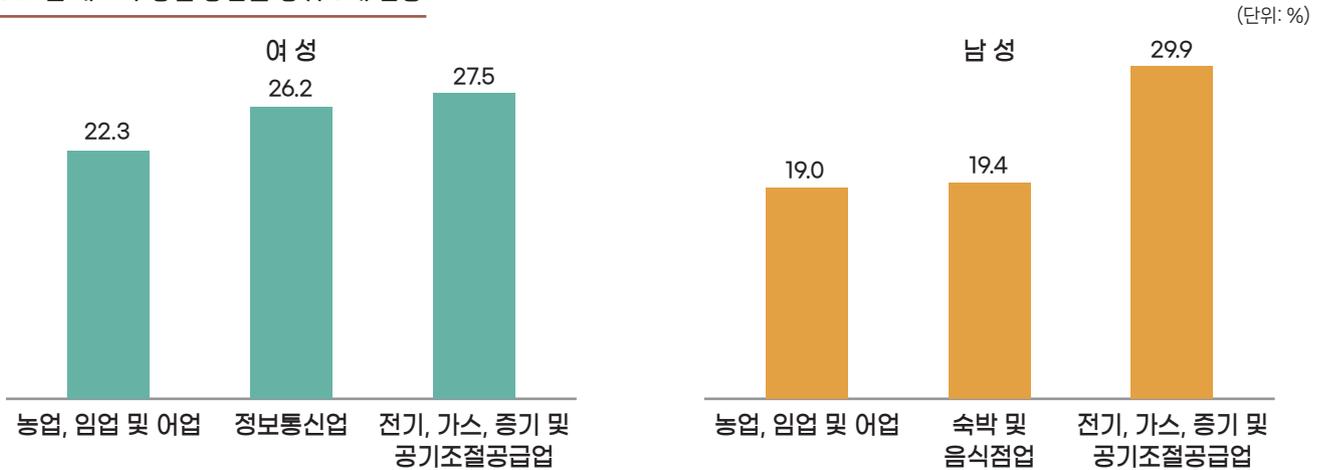
$$\text{창업률 } (g)_t = \frac{\text{창업 및 유입사업체수}_t}{\text{전체 사업체수}_t}$$

$t$ =연도,  $g$ =경남 여성기업 또는 남성기업

1)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「경남 여성 기업 실태와 지원방안」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 
 2)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'전국사업체 조사' 원자료로 해당 자료를 10년간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해서 분석함.  
 '전국사업체 조사' 원자료는 추출 대상 자료 중 200개의 레코드(행)가 임의로 선택되어 비식별화 처리가 수행되기 때문에 KOSIS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
 3) 창업률과 생잔율의 산출 산식은 김범식·장윤희(2021). 「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」의 연구를 참고함

| 2021년 기준 창업률 상위 3개 업종은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모두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업의 창업률이 각각 27.5%, 29.9%로 가장 높았고, 이외 여성기업은 정보통신업(26.2%),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9.6%) 등 이공계열 창업률이 19%를 상회함

2021년 대표자 성별 창업률 상위 3개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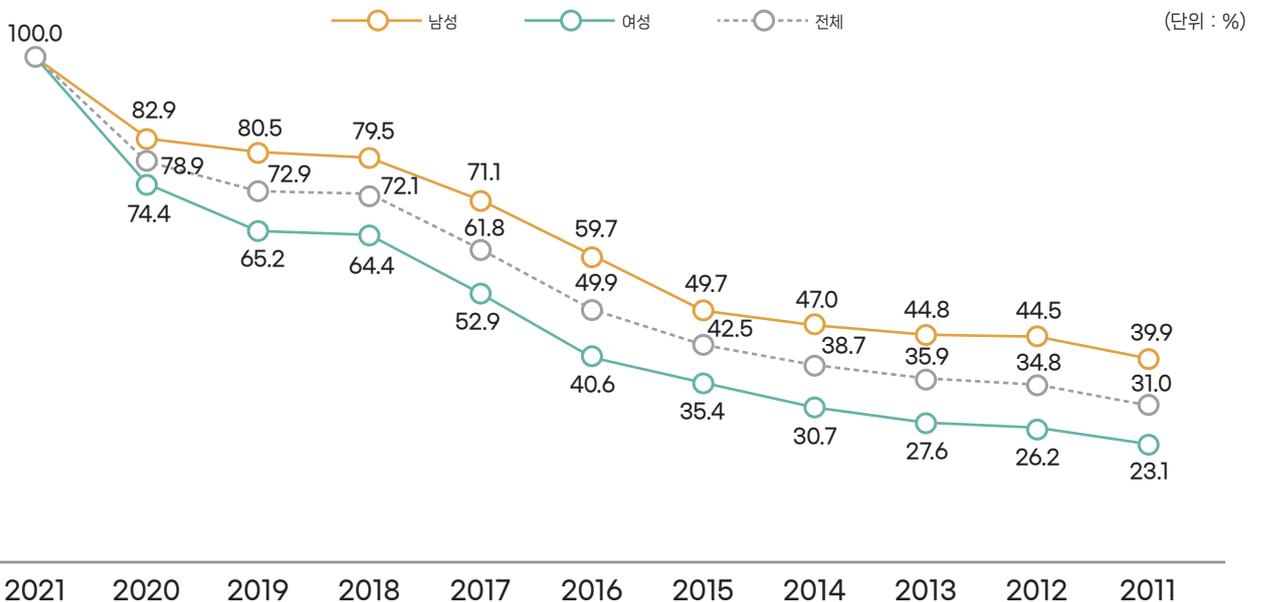


## 2. 경남 여성 기업 생산율

▪ 10년간의 생산율을 분석한 결과 항상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시장에서 더 오래 생존

| 생산율을 분석한 결과 항상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시장에서 더 오래 생존했고, 여성기업은 창업 한지 5년이 경과하면 생산율이 40% 이하로 낮아지지만, 남성기업은 창업한지 10년이 지나야 생산율이 40% 미만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
2011~2021년 경남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생산율 추이



출처 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, 「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(2011-2021)」, MDIS.

생산율( $g$ )<sub>n</sub>은 2021년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활용함. 각 연도별 생산율은 2021년에 존재하는 각 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

$$\text{생산율 } (g)_n = \frac{\text{창업 및 유입사업체수 } (g)_{t-n,t}}{\text{창업 및 유입사업체수 } (g)_{t-n,t-n}}$$

( $g$ )<sub>t-n,t=t-n</sub>년에 경남지역에 창업하거나 유입한 사업체 중 t년에도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 수